

【O-1】

조산아를 출산한 임신부의 식생활양식과 영양소섭취에 관한 연구

이승림^{1)†}, 장유경²⁾, 장욱, 이은경³⁾.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청강문화산업대학 식품과학과¹⁾,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²⁾,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소아과³⁾

임신기간 동안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저체중아 출산, 조산, 성장지연, 출생 결함 등의 위험률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조산아 출생률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를 조산아분만군(<37 weeks, n=61)과 정상아분만군(37~42 weeks, n=165)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식이 인자를 조사하여 두 군 간의 식품섭취와 식습관을 비교함으로써 조산아가 태어난 환경과 관련된 식이 인자의 차이점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 임신 중 섭취한 영양소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조산아가 태어난 위험인자를 살펴봄으로서 조산아 출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정상아분만군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직업의 종류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적인($p<0.05$)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요인중 신장은 정상아분만군이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보충제 중에서 철분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섭취기간은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오래 섭취하고 있었고, 커피 섭취빈도는 조산아분만군에서 유의적($p<0.001$)으로 높았다. 임신 중 활동은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에서 열량($p<0.05$), 당질($p<0.0005$), 식이섬유소($p<0.0001$), 칼륨($p<0.0005$), 비타민 B₁($p<0.005$), 비타민 B₆($p<0.05$), 비타민 C ($p<0.0001$) 그리고 엽산($p<0.05$)은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영양밀도는 비타민 B₁($p<0.05$)과 비타민 C($p<0.0001$)가 정상아분만군에서, 비타민 E($p<0.05$)는 조산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영양소 적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아연($p<0.05$), 비타민 B₁($p<0.05$) 그리고 엽산($p<0.05$)이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의 질적지수에 대한 비교에서 비타민 B₁($p<0.05$)과 비타민 C($p<0.0001$)는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E($p<0.05$)는 조산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섭취한 영양소와의 상관관계에서 혈중 빌리루빈 농도는 나이아신, 비타민 B₆ 그리고 아연과는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혈중 단백질은 비타민 A와 역의 상관관계($p<0.05$), 아연과는 정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혈중 알부민은 비타민 E, 비타민 B₆와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당질과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임신연령은 비타민 C와 정의 상관관계($p<0.005$)를 나타냈고, 임신 중 증가체중도 열량($p<0.005$), 당질($p<0.05$), 비타민 B₂($p<0.05$), 칼슘($p<0.001$) 그리고 인($p<0.005$)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분만군에서 열량, 당질, 식이섬유소, 칼륨, 비타민 B₁, 비타민 B₆, 비타민 C 그리고 엽산이 조산아분만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영양소들이 조산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